

WISET 글로벌 멘토링 결과보고서

1. 참여자 정보

성명	고나연	소속	한국공학대학교
학과	소프트웨어전공	학년/학기	4 학년 2 학기
참여 기업	Bloomberg	활동 기간	2023.03.~2023.12

2. 멘토링 활동 소감

장장 10 개월간의 멘토링 활동은 그간 저의 변화를 극명히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 의욕었던 시절 시작했던 멘토링은 저를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할 부스터의 스타터였고 지금에서야 돌아보니 가장 세상에 대한 시각의 변화의 속도가 빨랐던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. 제가 wiset 을 통해 참여했던 멘토링들 중에 제일 길었고 동시에 제가 제일 애정하던 멘토링이었습니다. 특히 함께 하던 멘티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기약하고 싶을 정도로 저와 바라보는 방향과 그 포부가 비슷하여 멘토링 외에도 행복했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본 기업을 방문할 때마다 저의 본질인 '자유로움'을 형상화시킨 것처럼 제 입사 욕구를 자극시켰고 이번 멘토링을 기회로 주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보안 때문에 멘토님과 사적 연락처라든지 사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고 당분간은 없겠지만, 다른 멘토링과 다르게 이 기업의 멘토링은 멘토보다는 멘티들의 에너지를 더 얻어가서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. 전반적으로 저의 큰 틀을 변화시켜준 감사한 멘토링이었습니다.

운영진님들과 멘토분,멘티들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※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 소감, 참여 후기, 멘토링으로 인해 변화된 점 등을 작성해 주세요. .

※ 향후 멘토링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이나 의견도 함께 남겨 주세요.

3. 멘토링 활동 내역(온·오프라인 정기 멘토링, 소그룹(개별) 멘토링 등)

○ 전체 활동 내역

No.	날 짜	주 제	세부 내용	방 법*
1	2023.03.23	kick오프미팅	기업 소개 및 멘토-멘티 첫만남 등	오프라인
2	2023.05.20	멘티교육	멘토링 우수사례, 글로벌 기업	오프라인
3	2023.05.25	Bloomberg Terminal Demo	블룸버그 터미널 데모, 네트워킹	오프라인
4	2023.07.27	Task Session	블룸버그 터미널을 이용한 데이터 찾기	오프라인
5	2023.09.14	해외 지사 사원 네트워킹 세션	Agenda(네트워킹)	온라인
6	2023.11.02	영문 이력서 첨삭	영문 이력서 첨삭	온라인
7	2023.11.16	영어 모의 면접	영어 모의 인터뷰	온라인
8	2023.12.07	Closing Event	케어키트 제작, 네트워킹	오프라인

※ 칸이 부족한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해 주세요.

※ 온·오프라인 모임(kick오프미팅, 정기 멘토링, 소그룹 멘토링, 멘티 모임 등)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.

○ 세부 활동 내역

회차	1 회차		
일자	2023.03.23	장 소	블룸버그 코리아
후기	<p>Wiset 멘토링을 여러개 참여중이지만, 여러 개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 멘토링에 기반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 멘토링은 저에게 다소 큰 충격이었습니다. 누구나 그렇듯이 취업 준비할 4학년 쯤 되면 불안감은 증폭되고 자신감은 결여되죠. 저 역시 일상을 그러한 굴레에서 갈피를 못잡다가 '뭐라도 해보자'라는 심산으로 우연히 접한 이 멘토링에 무작정 참여하였고, 아직도 그때의 선택에 저는 매번 감동받고 있습니다. 사실 외국 기업이라 그런지 비교적 큰 기업임에도 저는 이 기업을 들어본 적도, 그러니 관심조차 없었는데, 본 기업에서 진행되는 kick-off meeting 은 저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.</p> <p>첫 미팅 때 여느 기업 멘토링과 같이 멘토-멘티들을 정하였고 두 분정도의 멘토분들에게 3-4 명의</p>		

	<p>멘티들이 매칭되었습니다. 저희는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회사의 규모의 압도감으로부터 긴장을 풀었고, 블룸버그 터미널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와, 저의 분야인 소프트웨어 진로에 대해 조언들을 얻어냈습니다. 회사의 보안이 철저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어 아쉬웠지만, 그러한 점이 저에겐 더욱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. 글로벌 기업이라 해도 어느정도는 그 나라의 색이 은근히 많이 묻어나기 마련인데, 정말 블룸버그 코리아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글로벌 기업의 색깔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자유롭지만 철저한 분위기가 저를 매료시켰고, 정말 좋은 멘티들을 만나서 그 날은 멘토링이 아니라 휴식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이 들떴던 기억이 납니다.</p>
사 진	


회 차	2 회차		
일 자	2023.05.20	장 소	wiset 강의실
후 기	<p>원래는 3 월 25 일 예정이었던 멘티교육에 아쉽게도 저의 건강적인 문제로 불참하여 이 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이 멘토링의 큰 장점들 중 하나인 HR 팀과의 네트워킹은 취업전선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. 제가 9 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, HR 분께서 해주신 어떤 학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그 학생의 적극성과 해안을 알아보시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,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. 그때 당시 저는 학점도, 그리고 대외활동도 모두 저의 어깨를 위축되게 하는 요소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</p>		

	<p>이 세션을 듣고 난 후에는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의 미래와 태도라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보니 제가 철저히 저의 현실적인 요건들에 지레 겁을 먹고 위축되어 있어 더욱 매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반성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. 이번 시간을 통해 제 자세를 고쳐먹고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는 자세를 가질 것임을 은은하게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.</p>
사 진	


회 차	3 회차,4 회차		
일 자	2023.05.25,2023.07.27	장 소	블룸버그 코리아
후 기	<p><블룸버그 터미널 데모></p> <p>블룸버그 터미널은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저희가 직접 사용해봤는데,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어 배웠는데도 기억하기 쉽지 않았지만, 빅데이터를 이용해 어떻게 구현하는 게 좋을까와 같은 실질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기업에 가기 전 개인적으로 온라인 강의(BMC)를 듣고 사전 학습 후 시연하였지만 그럼에도 복잡했던 기억이 납니다. 새삼 그 기업의 직원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한, BMC 강의를 들으며 오랫동안 묻혀두었던 영어 듣기 실력을 꺼내볼 수 있어서 소소하지만 좋았던 느낌 또한 기억합니다.</p> <p>다만, 시간이 너무 짧아 늘 아쉬웠고 마음만으로는 하루종일 그 기업에서 제대로 그 기업의 느낌을</p>		

	<p>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.</p> <p>앞으로 남은 블룸버그 멘토링 또한 기대되는 바입니다.</p>		
사 진	 <p>(보안 문제로 찍지 못하여 wiset 팀이 찍으신 이미지로 대체합니다)</p>		

회 차	5 회차		
일 자	2023.09.14	장 소	온라인
후 기	<p>블룸버그는 글로벌 기업인만큼 여러 지사가 존재합니다. 블룸버그 코리아는 공개 채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신입을 잘 뽑지 않고 대부분 홍콩 지사로 시작했다가 넘어온다고 합니다.</p> <p>이번 시간은 각국에 널리 퍼져있는 해외지사 직원분들을 한데 모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</p> <p>저는 이 날 블룸버그에 궁금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. 제가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점은, 다른 계열이나 다른 직군에서 일을 했어도 블룸버그에 오면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맡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. 없으면 만드는 식으로.. 서로 연관성이 없어보이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에 재능이 있고 또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점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.</p>		

	이번 세션도 저에겐 의미있는 시간으로 남았습니다.
사 진	

회 차	6 회차		
일 자	2023.11.02	장 소	온라인
후 기	<p>이번 세션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미리 작성한 레주메를 가지고 첨삭을 받는 시간이었는데, 저는 hp 에서 이미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서인지 보다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삭받을 점이 좀 있었습니다. 그 내용은 템플릿을 지켜라(순서를 지켜라),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이었습니다. 디테일까지 신경써주는 것을 보며 이번 세션에 바빠도 참여하게 된 게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. 전에도 느꼈지만 한국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와 다소 결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.</p> <p>그 외에도 남은 시간에는 멘토분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 또한 잠깐 가졌습니다.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저는 준비한 질문을 모두 할 수 있었고 이 시간이 저의 머릿속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.</p>		

사 진	<div data-bbox="256 195 1406 865"> <h2>Essential Things to Remember</h2> <div> <div> <h3>Basics</h3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용은 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 • 오타, 문법(a/an, 대소문자) 주의 • Cover letter, Resume, LinkedIn 등 일관된 내용 및 통일성 • 가장 최근 이벤트부터 순서대로 작성 • 내용의 포맷, 글꼴, 사이즈, 위치, 볼렛 포인트 등의 형식 통일 • 최종 문서는 PDF로 제출 </div> <div> <h3>Check before you write a resume</h3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하는 Role의 Job description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및 skillset 체크 • 자신의 특징과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동사를 겹치지 않게 사용할 것 (Analyzed, Organized, Coordinated, Designed, Implemented, Generated, Improved, Facilitated, Evaluated, Identified, Showcased, [...]) • 교외활동, 수상, 공모전 등 경험은 수치나 구체적인 활동내용 기록 • Skill의 능숙도 순으로 나열 </div> </div> <div>  </div> </div>
--------	--

회 차	7 회차		
일 자	2023.11.16	장 소	온라인
후 기	<p>이번 세션은 블룸버그 hr 분 앞에서 모의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 세션은 시작하기 전부터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. 온라인이라 떨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, 면접이라는 것이, 그리고 영어라는 점이 한 몫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미리 준비한 script 를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지만, 스크립트(예상 질문과 답변)에 없는 기습 질문에는 당황한 티를 너무 내었고 그에 따라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아쉬웠습니다. 그럼에도 처음에는 떨렸지만, 나중에 되니까 긴장이 풀어졌고 이에는 hr 분의 편안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긴장하지 않게</p>		

	<p>계속 괜찮다 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실 때도 최대한 감정이 상하지 않지만,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피드백의 내용은,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라 였습니다. 내심 부끄러웠습니다.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고 있었던 대기방에서 저는 궁금했던 질문을 드렸습니다. 내용은, '스크립트가 없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?'와 '스크립트를 보고 면접을 보는 걸 어떻게 아시는 걸까요?'였습니다. 답변은 '스크립트의 흐름을 외우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라'라는 식의 영어 실력이 native 해야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었습니다. 그 다음 답변은 '많이 보았으니 충분히 눈치챈다'의 제가 예상한 답변이었습니다. 이 날 저는 영어 회화 실력부터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</p> <p>그리고 저번 세션과 더불어 글로벌 기업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감을 잡게 된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.</p>
사 진	

회차	8 회차		
일자	2023.12.07	장 소	블룸버그 코리아
후기	<p><Closing Session></p> <p>유독 끝나지 않았음 했던 멘토링이 끝을 내었습니다. 이 날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간단한 봉사를 했고, 멘토분들과 멘티들을 마지막으로 뿔게 된 시간이었습니다. 마지막이었지만 겨우 2 시간 정도 였다는 게 너무 아쉬웠고, 마지막까지 너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 참여했던 저와 지금의 저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첫 kick-off meeting 때와 같은 장소에서 마지막을 보내서 그런가, 그 차이점이 더욱 극명하게 느껴졌습니다. 그럼에도 블룸버그에 대한 저의 벅참과 설레임은 변치 않았습니다. 너무 매력적인 회사와 함께해서 행복했고 나중에 언젠가 함께 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</p>		

사
진



